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본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11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도로과	담당자 • 도로운영팀장 김복수 ☎440-3781 • 담당자 김동조 ☎440-37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관내 교량 273개소 전면 안전점검 실시
- 붕괴 사고와 유사한 교량형식 우선 점검,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보수·보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4월 5일에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 관내에 설치된 교량 273개소(시 관리 149개, 군·구 관리 106개, 국가 등 기타 18개)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4월 7일 도로 교량 및 고가도로를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10개 군·구에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와 유사한 내민보(캔틸레버) 형식의 교량은 이번 주까지 우선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공용년수 30년 이상, 교량하부에 상수도관, 전기 등의 시설이 부착된 교량은 좀더 세밀한 안전점검 대상이다.

시는 교량 현장조사 결과, 긴급점검 및 보수를 요하는 교량은 즉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우리 시 관내 교량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보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 굴포4교 >